

전남도, 농업재해 적극 행정 통했다...6건 전국 첫 인정

말기 생육불량·매실 저온 피해 등 기상이변 따른 인과관계 입증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565억·농작물재해보험금 1178억 지급

전남도가 기상이변에 따른 인과관계 입증 등 적극 행정을 통해 농업 재해 인정을 이끌어내 올해 재해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565억원, 농작물 재해보험금 1178억원 등 모두 1743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역대 가장 많은 13차례 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 중 6차례는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건의해 재해 인정을 이끌어냈다.

실제 말기 생육불량 등 '시설 원예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전남이 최초 건의해 30년간 기상을 분석하고, 전국의 주산지별 일조시간과 생산량 등을 비교 분석해 제시하는 등 45일간 5차례에 걸쳐 인과관계를 입증해 재해로 인정받았다. 전남의 일조량 감소 대응은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

회에서 장려상을, 전남도 자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지난 4월까지 5개월간 저온, 강우,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로 매실 저온 피해(냉해)와 마늘 2차 생장, 양파 생육 불량은 물론 9월 폭염(고온)에 따른 인삼 잎-줄기 마름 피해 등도 전국 최초 건의해 재해로 인정받았다.

특히 비별구의 경우 전남이 최초 건의할 당시 농업축산식품부는 "중해는 농가가 관리할 수 있고, 지원 사례도 없어 농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남도가 전·평년 기온, 이상고온에 따른 개체 수 및 산란 횟수 증가 인과관계, 멸구 유입 시기와 경로 등을 근거로 제시하

는 등 9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지난 10월 법에도 없는 비별구 피해를 최초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그 결과 전남지역에선 올해 13차례 발생한 재해피해 농가에 대해 565억원의 재난지원금과 농작물 재해보험금 1178억 원 등 전체 1743억원을 지급했다.

재해보험의 경우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가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가입을 유도해 가입률이 61%(10월 기준)로 전국 평균 가입률 51%를 크게 웃돌도록 한 것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일상화·규모화된 재해에 대비해 내재해 품종과 작물, 재배기술 등을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지원을 확대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쿄호남향우회 "고향사랑 앞장서겠다"

도, 일본서 고향사랑실천 간담회 서포터즈 5000명 가입 약정 등

전남도가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동경호남향우회 고향사랑 실천 간담회'를 열어 재일향우와 함께 고향 발전과 상호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열린 중국 고향사랑실천간담회에 이어 열린 이번 간담회는 고향사랑 실천 캠페인을 세계로 확산하고, 전남도와 재일동포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명장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용덕 동경호남향우회장과 향우회 회원, 김달범 세

계호남향우회 전임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동경호남향우회는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5000명 가입을 약정하고,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글로벌 고향사랑 실천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명장환 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동경호남향우회는 전남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세계로 도약하는 전남의 든든한 동반자"라며 "향우의 애정과 지원이 전남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앞으로도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다양한 교류를 펼치는 등 향우들과 유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노벨문학상 산실 장흥·강진서 '남도한바퀴' 어때요

전남 시·군 관광 테마상품 운영 광주 유스퀘어·송정역 순환버스 올해 2만6000여명 이용 인기

전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가 노벨문학상 산실 장흥·강진 꿈꾸는 여행 운영 등 전남의 겨울을 즐길 다양한 테마상품을 준비, 관광객을 맞이한다. 남도한바퀴는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쉽고 편하게 도내 다양한 관광지를 즐기도록 광주 유스퀘어, KTX 광주송정역과 연계해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별 테마상품과 전남·광주 공동상품, 전남

지역 주요 축제와 연계 운영 등 남도의 문화와 자연, 미식을 맛볼 다양한 코스를 9900원부터 시작하는 착한 가격으로 운영,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전남의 겨울을 즐길 주요 테마상품은 ▲대한민국 노벨문학상의 산실인 '장흥·강진 꿈꾸는 여행' ▲남도의 숲과 바다가 주는 휴식과 힐링을 즐기는 '광양·순천 즐거운 여행' ▲서해 최고의 해안길을 볼 수 있는 '함평·영광·무안 주말여행' 등 총 14개 코스다.

남도한바퀴는 남도 전통문화를 체험할 '진도·해남 소릿길 여행', 남도의 시원한 바다와 크루즈를 즐길 '여수 크루즈 여행', 푸른호수 가운데 적벽을 담은 '화순·담양 비경여행' 코스가 전남만의 매력으로 큰 인기를 끌어 매회 좌석을 가득 채웠

다. 또 관광지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전남 관광지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1월 말까지 986회 운영, 2만6690명의 관광객이 이용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219명이 증가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올 한해도 2만 6천여 명의 많은 관광객이 남도한바퀴를 통해 전남을 방문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여행상품과 내실있는 운영으로 다시 찾는 글로벌 매력 도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도한바퀴 겨울코스 상품예약은 누리집(<http://citytour.jeonnam.g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콜센터를 통한 예약도 가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I로 단순·반복 행정 대체" 도, 고품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본격 가동

전남도, 시·군 워크숍

전남도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문서 작성, 행정 데이터 분석 등 반복적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공직자들이 보다 창의적 정책 기획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6일 나주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에서 도, 시·군 생성형 인공지능(AI)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 행정업무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워크숍에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가를 초청해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과 2025년 생성형AI 도입 관련 공모 사업을 소개하고, 이에 맞춘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성형AI 업무 활용 교육 등 생성형AI 기술을 행정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실증 장비 47종을 구축한 고품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바이오테이즈 등 12개 기업이 입주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150억원을 투입, 지난해 10월 스마트팜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이 입주해 연구개발과 실증을 진행할 4.05ha(온실 1.92ha·노지 2.13ha) 규모로 실증단지 조성을 완료했다.

현재 실증단지에는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농업용 로봇,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생육 실증장비를 포함해 모두 47종의 장비를 모두 구축했으며, 12개 기업이 온실 구역에 입주해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바이오테이즈는 방울토마토의 병해충 예방을 위한 미생물 제제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린씨에스는 네덜란드 기술로 구축된 반밀폐형 온실을 활용, 토마토를 재배하는 실증

연구를 통해 한국형 반밀폐형 온실 개발을 목표로 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는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농업용 로봇, 무인 농기계 등 첨단 농업기술을 실증하고 보급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전남도가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농업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숲속의 전남-서부지방산림청 '숲문화운동' 협약

국립화순치유숲서 제3호 행복나눔숲 조성...명품숲 시상식도

(사)숲속의 전남(이사장 황금영)이 지난 6일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과 함께 숲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식은 전남 화순군 한천면에 위치한 국립화순치유숲에서 진행됐으며, 숲속의 전남 송년회를 겸해 회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으로 이들 단체·기관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내 산림자원의 육성과 탄소중립 실천 나무심기 사업, 전남도의 아름다운 숲을 알리는 홍보, 숲 돌보미 자원봉사 활동 등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지난 10월부터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명품숲들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대상(산림청장상)에는 진도군 관매도 해송숲, 최우수상(전라남도지사상)에 구례군 지리산 정원, 우수상(숲속의 전남 이사장상)에는 무등산

바우정원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러 국립화순치유숲 내 진디광장에서 팽나무 식재와 함께 제3호 행복나눔숲 표지석도 설치했다. 지난 2023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행복나눔숲은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숲의 가치를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사)숲속의 전남과 서부지방산림청은 업무협약을 통해 숲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유림내 산림자원의 육성과 탄소중립 실천 나무심기 사업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숲을 알리는 홍보 활동 ▲조성된 숲을 관리하는 숲 돌보미 자원봉사 활동사업등 민간협력을 통한 숲문화운동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